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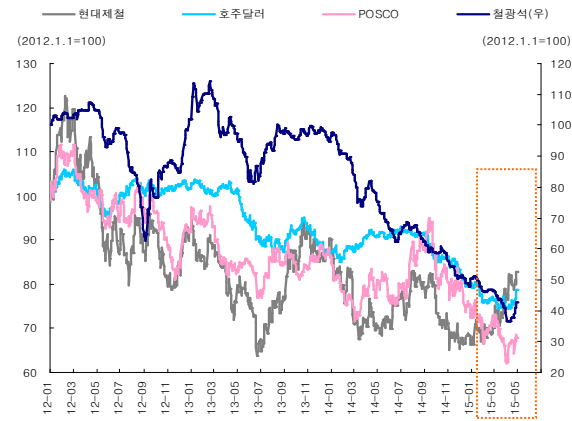
4월 FOMC, 최대 수혜는 소재업종

1. 달러약세 단기 병목점 부재, 추가 하락 가능성에 무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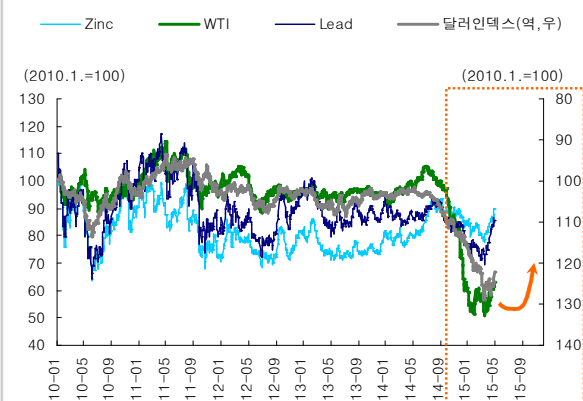
- 4월 FOMC회의 완화적 정책기조 유지하며, 예상수준에 부합. 전반적인 경기수준(수출, 소비, 설비투자, 고용 등) 하향 조정했으나 이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판단
- 완화적 FOMC회의 결과는 최근 美 경기지표 부진과 더불어, 달러화 약세기조를 연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듯
- 미국 경제지표의 급격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, 단기관점에서 달러화 약세기조는 5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
- 기술적 분석 관점 1차 지지선이었던 96.4 붕괴 2차 지지선은 93 수준이 될 듯

2. 최근 철광석과 호주달러 단기 반등에 주목한다면?



- 최근 철광석과 호주달러는 중국의 경기부양 기대감과 달러화 약세를 배경으로 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
- 중국 국영기업 개혁(철강산업 구조조정기대) 및 추가 경기부양 기대, 달러화 약세기조 지속 등이 단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, 철광석과 호주달러의 반등기조 역시 5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판단
- 이는 국내 철강업종의 단기 투자심리 개선에 일조, 트레이딩 매수기회로 작용할 듯 (최선호 현대제철, 차선호 POSCO)

3. 달러화 약세 + 수급이슈 = 비철금속, 원유 가격상승 기대



- 한편 비철금속(아연, 연) 가격과 유가는 최근 각 연합의 수급이슈를 반영하며 상승기조가 이어지고 있음
- 이러한 기조 하에 달러화 약세 효과까지 더해진다면, 기존 상품가격의 상승탄력은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
- 1) 비철금속(아연) 아연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고려아연과
- 2)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차의 증가 기대감이 높은 S-OIL을 각각 추천함 (유동성 파타는 계속된다, 4/27 발간 참조)

4.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?

- 4월 FOMC회의 전반적인 경기전망 하향조정하며 완화적 정책스탠스 유지
- 부진한 美 경기지표 + 연준의 완화적 정책조합 지속, 달러화 추가 약세 불가피
- 달러화 약세국면 연장되며, 한국증시의 외국인 자금유입 기조는 지속될 듯
- 더불어, 달러화 약세에 따른 상품가격 반등과 이에 따른 수혜업종에 관심
- 철광석+호주달러 상승 + 달러화 약세 조합
→ 국내 철강업종 단기 트레이딩 기회 제공, 현대제철 최선호, POSCO 차선호
- 비철금속(아연), 유가 상승 + 달러화 약세 조합
→ 고려아연(비철금속)과 S-OIL의 2Q 실적개선 기대감 높아질 듯

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해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.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,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.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,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,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, 복제, 인용, 변형할 수 없습니다.